

7세기 백제와 일본 正倉院 소장품

The Seventh-century Baekje Kingdom and the Shōsōin Repository Collections

저자 (Authors)	신숙 Shin, Suk
출처 (Source)	미술사학 , (36), 2018.8, 165-188 (24 pages) Art History , (36), 2018.8, 165-188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미술사교육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rt History Educ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20747
APA Style	신숙 (2018). 7세기 백제와 일본 正倉院 소장품. 미술사학, (36), 165-18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1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7세기 백제와 일본 正倉院 소장품*

신 숙**

- I. 머리말
- II. 미륵사지 석탑 출토품과 正倉院 소장품
 - 1. 왕실의 보석, 진주
 - 2. 금속과 유리의 조화
- III. 正倉院의 義慈王 관련 기록과 공예품
 - 1. 문서의 내용과 현존 유물
 - 2. 공예 재료와 장식기법
- IV. 맺음말

I. 머리말

正倉院 소장품은 일본의 光明皇后가 남편 聖武天皇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756년(天平勝寶 8) 6월 21일 49齋日에 그가 평소 간직하고 애용했던 634점의 물품을 東大寺에 헌납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예불 의식에 사용한 것이나 외부에서 추가로 헌상된 품목이 포함되면서, 약 9천 여 점에 이르는 수집품을 갖추게 된다. ‘正倉’은 古代 사찰이나 官衙에서 주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뜻했으며, 현재는 奈良 東大寺의 부속 건물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쓰인다.¹ 황실의 보물은 東大寺 『獻物帳』에 기록되어 어 품 당시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고,² 엄격한 관리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시대를 대표

* 본 논고는 2018년 3월 7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포럼(정창원 소장 한반도 유물)에서 발표한 「백제와 일본 正倉院 소장품」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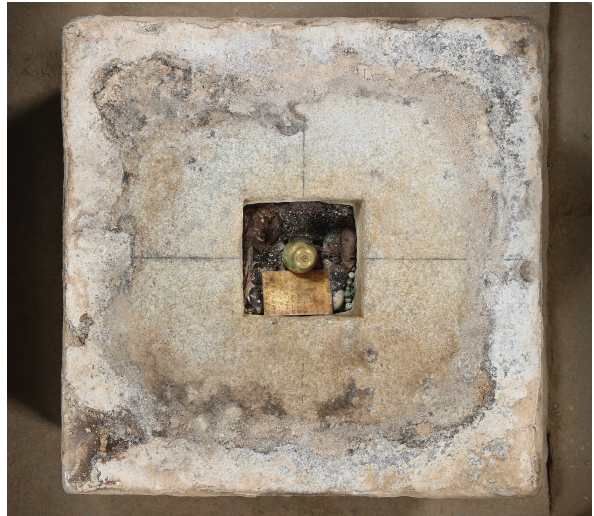
¹ 正倉院은 일본 奈良縣 東大寺의 후원에 있는 목조 건물을 지칭하며, 높이 14m, 南北 길이 33m, 東西 폭넓이 9.4m로 北倉, 中倉, 南倉 등 三室로 구성되어 있다.

² 東大寺 『獻物帳』은 〈國家珍寶帳〉, 〈種種藥帳〉, 〈屏風花氈等帳〉, 〈大小王眞跡帳〉, 〈藤原公眞跡屏風帳〉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國家珍寶帳〉은 756년 光明皇后가 東大寺에 헌납한 愛用品 634점의 품목을 열거한 것으로 獻物帳 가운데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카에하라 토와오, 이병호 옮김, 『정창원문서 입문』(태학사, 2012), pp. 36-37.

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自國産 유물과 함께 한국,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등 실크로드를 통한 국제적 교류의 산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正倉院 소장품의 중요성에 대하여 일찍부터 주목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증명해주는 자료가 포함되었고 국내 희소하게 전하거나 전무한 유물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본에 소재하고 황실 유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正倉院 소장품의 직접 조사나 연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로 진전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소장품이 헌납된 시기와 다수의 유물이 제작된 연대가 8세기로 비정되면서, 통일신라와의 비교 연구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향후 7세기와 9세기에 제작된 소장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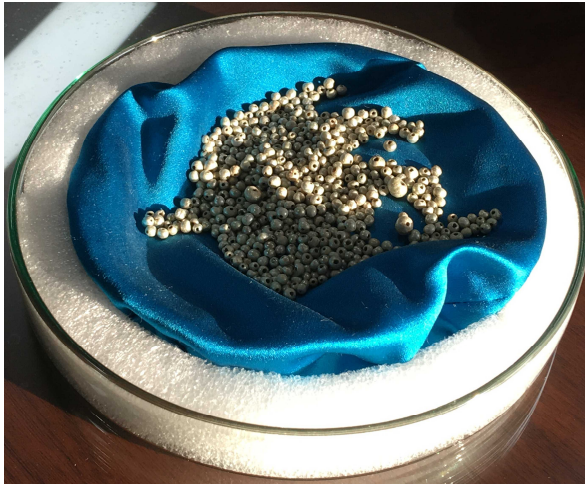
특히 백제가 고대 일본과 정치적, 문화적 교류를 나누며, 특별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을 참고하면 관련된 유물이 正倉院에 소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백제의 미술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 傳世品이나 출토품이 적어, 비교 연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행히 근래 왕흥사지와 미륵사지 등에서 새로운 유물이 발굴되면서, 백제를 다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전라북도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心柱石에 봉안된 사리장엄 일괄 유물과 金製舍利奉迎記는 백제의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도 1).³ 봉영기의 명문을 통해 沙毛積德의 딸인 무왕(재위 600-641)의 왕비가 재물을 시주하여 639년에 가람을 세운 내용이 확인되었고 동반된 출토 유물도 모두 23건 9,900여점에 이르는 방대한 수량이다.⁴ 무엇보다 7세기



도 1. 사리장엄 최초 노출 상태, 백제,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4, 사진 1-9, p. 20)

³ 미륵사는 백제 武王(재위 600-641) 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며, 현재 서쪽의 석탑 1기가 남아 있다. 석탑은 세월이 흐르면서 파손되어,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1999년 해체·수리하기로 결정되었고 학술적 기술적 조사연구, 구조보강, 보존처리 등을 시행하여 2018년 6월 20일 복원이 마무리되었다. 현재는 석탑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하고 있으며, 2019년 수리 준공식 개최를 앞두고 있다. 석탑의 해체 과정에서 지난 2009년 1월 14일, 사리장엄구와 금제사리봉영기가 발견되었다.

⁴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특별전』(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도2. <진주>, 백제,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백제 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된 출토품이라는 점에서 일본 正倉院 소장품과의 연관성을 살펴해보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미륵사지 출토품에서 주목되는 공예 재료, 장식 기법, 문양의 특징 가운데 正倉院 소장품과 비교할 수 있는 일면을 살펴볼 것이다.

正倉院에는 백제 의자왕(재위 641-660)과 관련된 문서도 전하며, 기록과 연결되는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이는 기존에 잘 알려진 자료지만 공예품의 세부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특징, 그리고 백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륵사지 석탑 출토품을 비롯한 백제의 유물과 正倉院에 전하는 문헌기록 및 공예품을 비교하여, 두 나라의 문화 교류와 영향 관계를 고찰하겠다. 더불어 무왕과 의자왕으로 이어지는 백제 후기 공예 문화의 의의와 미술사적 위상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미륵사지 석탑 출토품과 正倉院 소장품

1. 왕실의 보석, 진주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장엄구는 금동사리외호, 금사리내호, 유리사리호 등 3중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사리구 외호와 내호를 중첩한 사이 빈 공간에는 각종 구슬을 가득 채워 넣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그 밖에도 사리공 안에는 여러 종류의 내용물이 들어 있는 청동합 6점이 있었고 칼, 은제관식, 은제 과대 장식, 금제소형관, 금제족집게, 금과 등도 출토되었으며, 수정, 진주, 마노, 옥, 호박과 같은 보석류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물품은 사리봉안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헌납한 공양품으로 추정되며, 평소 소중하게 간직했던 귀중품이나 財貨로 판단된다. 그 중에 기존에 출토 사례가 적었던

소,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 (2010);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4) 참고.



도3. 〈石槲線刻畫〉拓本 부분, 중국 唐 706년, 陝西省 懿德太子墓 (『唐の女帝・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 宮廷の栄華』), 東京國立博物館, 1998, p. 200)



도4. 〈父母恩重經變相圖〉부분, 北宋, 絹本彩色, 영국박물관 (The British Museum Collection online)

진주가 모두 800여점이 수습되어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진주는 사리공에서 32점이 발견되었고 공양품으로 봉안된 청동합 두 개에서도 각각 630여점, 140여점이 확인되었다(도 2). 진주 관련 유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예도 거의 없었으며, 재료의 특성과 가공 기술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된 바 없다.⁵ 진주는 海水나 淡水에서 서식하는 조개류에서 얻을 수 있는 유기질 보석이다. 연마과정을 거쳐 야만 아름다운 색과 빛을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광물 보석과 달리, 진주는 자체로 빛나는 광택을 지니고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진귀한 보물이었다. 眞珠는 蠙珠나 明珠, 또는 珍珠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렸으며, 중국의 고대 문헌 중에는 明珠로 기록된 예가 많다.⁶ 우리나라에서도 이른 시기의 문헌에는 진주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명주라고 지칭한 경우는 찾을 수 있다. 『三國史記』에는 백제 毗有王이 신라에 훌륭한 말과 흰색 매를 선물로 보내자, 訥祗麻立干이 黃金과 明珠로 답례하였다는 내용이 전한다.⁷ 또한

5 신숙, 「한국 미술에 보이는 보석재료와 장식」, 『금은보화』 (삼성미술관 리움, 2013), pp. 142-143.

6 班固, 『白虎通德論』 卷5 封禪, “江出大貝 海出明珠”; 桓譚, 『新論』, “海蛛未剖 則明珠不顯”; 老子, 『河上公章句』 道經 體道, “明珠在蚌中 美玉處石間”

『高麗史』의 기록인 “탐라의 勾當使 尹應均이 커다란 진주 두 개를 바쳤는데, 별처럼 반짝여서 사람들이 夜明珠라고 하였다”는 언급을 통해 진주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⁸

미륵사지의 진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변화되었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다. 완벽하게 구형을 갖춘 예도 있지만 일부는 타원형이며, 모두 가운데 구멍 뚫린 모양으로 깨어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염주와 같은 佛具나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 등 여러 용도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진주는 특별히 고위 신분의 여성 冠飾에 즐겨 사용된 보석이다. 신라의 기록이지만 ‘釵禁刻鏤及綴珠’라고 하여, 진주를 서로 엮어 장식한 비녀는 진골도 사용할 수 없는 최고 신분의 전유물이었다.⁹ 참고할 수 있는 실제 유물은 唐代 高祖의 5대 자손인 李偃 공주 고분에서 출토된 바 있는데, 진주를 비롯하여 호박, 마노, 티카석 등 여러 보석을 이용하여 만든 왕실 여인의 관식이다.¹⁰ 또한 중국 당대 벽화나 선각화로도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懿德太子墓 石槲線刻畫에 묘사된 宮人의 머리 관식을 자세히 보면 진주와 같은 구슬을 꿰어 장식하고 드리개로 매단 것을 알 수 있다.¹¹ 또한 양쪽 옆으로 봉황과 같은 상서로운 새가 수식을 물고 있는 모습도 관찰된다(도 3). 이러한 장식은 宋代에도 계승되었으며, 고위 신분의 여성이 착용하는 관식의 전형으로 자리하게 된다(도 4). 따라서 미륵사지의 진주는 후원자였던 무왕의 왕비와 관련된 유물일 가능성이 높고 왕후의 관식에 장식되었을 것이다.¹² 미륵사의 사리봉영기에는 ‘百濟王后佐平沙毛積德女’로 자신의 가문이 명시되어 있다.¹³ 사리를 봉안한 왕후의 배후 세력이 백제 大姓

7 『三國史記』 卷第3 新羅本紀 第3 訥祇麻立干, “十八年, 春二月, 百濟王送良馬二匹, 秋九月, 又送白鷹, 冬十月, 王以黃金明珠, 報聘百濟.” ; 卷第25 百濟本紀 第3, 毗有王, “八年, 春二月,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秋九月, 又送白鷹, 冬十月, 新羅報聘以良金明珠”

8 『高麗史』 卷9 世家 第9 文宗 己未 33年(1079), “冬十一月… …壬申 耽羅勾當使尹應均獻大眞珠二枚光耀如星時人謂夜明珠.”

9 『三國史記』 卷 第33 雜誌 第2 色服, “眞骨女, …梳禁瑟瑟鈿玳瑁, 釵禁刻鏤及綴珠, 冠禁瑟瑟鈿”

10 李偃는 高祖 李淵의 5대 손녀로 25세인 開元24年(736)에 사망하였고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西安 理工大学 曲江校 발굴 조사에서 고분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0년 공주의 시신 머리 위에서 발견된 冠飾이 복원 수리되어, 중국 北京 首都博物館 〈百工千慧-中國文物保護科學和技術成果展〉에 소개된 바 있다.

11 東京國立博物館, 『唐の女帝・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 宮廷の榮華』(NHK・NHK プロモーション, 1998), p.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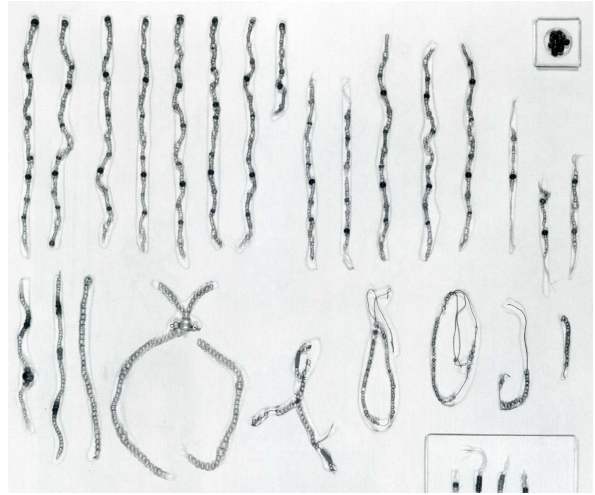
12 신숙, 「백제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양품의 보석과 교역」, 『미술사연구』 31 (미술사연구회, 2016), pp. 37-40.

13 미륵사지 서탑 사리봉영기, 앞면, “竊以法王出世隨機赴, 感應物現身如水中月, 是以託生王宮示滅雙, 樹遺形八斛利益三千, 遂使光耀五行行遠七, 遍神通變化不可思議, 我百濟王后佐平沙毛, 積德女種善因於曠劫, 受勝報於今生撫育萬, 民棟梁三寶故能謹捨, 淨財造立伽藍以

八族 중에서도 위세가 높았던 沙屯임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친위 세력의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면서, 왕후의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최상의 재료로 진주가 활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正倉院 소장품 중에도 진주가 전한다. 모두 3830점에 이르며, 바다에서 얻은 천연진주로 확인되었다. 北倉에 일괄유물로 보관되었고 光明皇后와 관련된 유물로 추측되고 있다(도 5).¹⁴ 다수는 잔편으로 남아있어 완벽한 원형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구멍 있는 모습으로 가공된 것이다. 또한 다양한 금속 장식과 산호, 마노, 유리제 구슬 등도 함께 전하는데, 여기에는 금동제 봉황장식 두 점도 포함되어 주목된다(도 6). 이는 머리 양쪽에 구슬류를 물고 있는 새 장식처럼 보이며, 皇后의 冠飾에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왕실 여인의 관식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正倉院 소장품은 미륵사지 석탑의 유물과 다소 시간적으로 간극이 있지만 진주를 활용한 왕비의 관식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한편, 백제와 관련이 깊은 飛鳥寺 탑의 心礎 출토품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진주가 납입된 사실이 근래 추가로 확인되었다.¹⁵ 국내 미륵사지에서 진주가 발견되면서



도5. <진주>, 일본 正倉院 北倉
(『正倉院展』(奈良國立博物館, 2002), 도판 1, p. 18)



도6. <봉황형장식>, 일본 正倉院 北倉
(『正倉院展』(奈良國立博物館, 2002), 도판 1, p. 14)

己亥.” 뒷면, “年正月廿九日奉迎舍利, 願使世世供養劫劫無, 盡用此善根仰資大王, 陛下年壽與山岳齊固, 寶曆共天地同久上弘, 正法下化蒼生又願王, 后卽身心同水鏡照法, 界而恒明身若金剛等, 虛空而不滅七世久遠, 並蒙福利凡是有心, 俱成佛道.” 원문의 내용과 해석은 김상현, 『금제사리봉영기』,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2014), pp. 51-59 참고.

¹⁴ 『正倉院展』(奈良國立博物館, 2002), 도판 1, pp. 14-21 참고.

¹⁵ 田村朋美, 「飛鳥寺塔心礎出土の真珠製小玉」, 『奈良文化財研究所紀要』(奈良文化財研究所, 2017), pp. 58-59.



도7. <수정제 천공구>, 사천 본촌리 주거지, 길이 1.6~2.7cm, 경성대학교박물관 (북천박물관, 『옥의 세계』, 2013. p. 68)



도8. <진주> 일부, 백제,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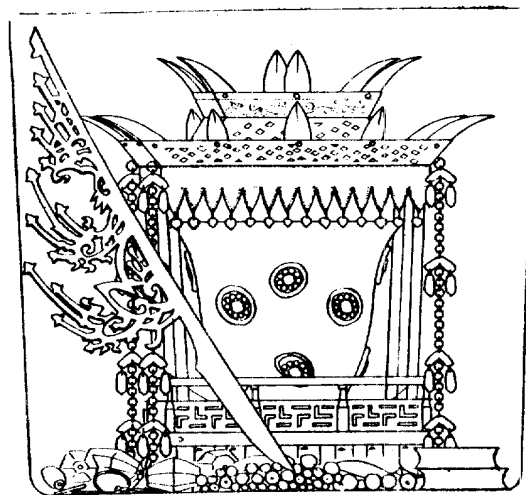
관심이 높아지자, 기존의 출토품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출토된 진주는 모두 구멍 뚫린 모양인데, 穿孔은 자칫 고가의 재료를 파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세공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고대 사회에서 보석류와 같은 재료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穿孔具를 쓰는데, 강도가 높은 암석을 이용하여 양방향으로 뚫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정과 같이 강도가 좋은 재료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천공구로 사용한 예도 있다(도 7). 또는 활처럼 굽은 나무에 시위를 메고 가는 송곳자루를 걸어서 구멍을 뚫는 도구를 활용했는데, 주로 옥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고대 대표적인 보석인 옥의 가공기술에 대해서는 일부 알려진 사항이 있지만 진주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공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륵사지 출토 진주를 육안으로 관찰해보면,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양방향 혹은 한쪽 방향으로 구멍 낸 것으로 파악된다. 한 방향일 경우, 보통은 도구가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의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 또한 크기가 작아 작업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을 텐데도 일부 진주는 매우 깔끔하고 양쪽 모두 정확한 크기로 타공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솜씨를 보여준다(도 8). 우리나라는 마한 소국 시기부터 옥과 구슬을 재보로 여기고 좋아했으며, 백제는 그와 같은 전통을 이어 일찍부터 구슬류의 장식품 생산을 왕실수공업으로 정착시킨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¹⁶ 진주를 가공하는 기술력도 보유했을

¹⁶ 김창석, 「백제 왕실수공업의 성립과 생산체제」, 『백제연구』 4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7), pp. 6-7.



도9. <유리사리기>, 경상북도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높이 6.3cm,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佛舍利莊嚴』, 1991, p. 29)



도10. 송림사 전탑 사리구 배치도 및 진주장식 (김재원, 『松林寺塔塔』, 『진단학보』 29·30, 1996, 第18圖, p. 22)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 일본에서 金銀珠玉과 같은 귀한 재료는 주로 宮廷工房인 内匠寮에서 다루었다. 특히 百濟手部로 불린 縫作工人集團에서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¹⁷ 기존의 관례로 볼 때에도 고대 진주의 생산지와 가공 지역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기록이지만 구멍이 없는, 즉 가공하지 않은 진주를 예물로 받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¹⁸ 또한 일본의 해안지역에서 산출된 진주도 현지에서 가공하지 않고 원재료를 중앙의 官營工房으로 보냈을 것이다. 고가의 진주를 기술력이 없는 현지에서 가공하기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백제를 통해 진주 가공 기술을 받아들인 후, 주로 관영공방에서 제작하여 왕실이나 사찰에서 소비된 것으로 이해된다.

미륵사지의 진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어, 후대의 주목되는 사례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 칠곡 송림사 전탑에 안치된 사리장엄구는 금과 유리로 제작된 화려한 외형으로 유명하다. 특히 내함으로 사용된 유리기는 유물을 수습할 당시 기물의 외면에 작은 진주알이 부착된 것으로 전한다(도 9). 즉 기

17 松月清郎, 「正倉院の眞珠穿孔技法」, 『正倉院紀要』 14 (宮内庁正倉院事務所, 1992), pp. 31-32.

18 『舊唐書』 卷198, 列傳第148, 西戎, “波斯國…自開元十年至天寶六載 凡十遣使來朝 并獻方物 四月 遣使獻瑪瑙牀 九年四月 獻火毛繡舞筵 長毛繡舞筵 無孔眞珠.”

면에 있는 고리형 무늬 안쪽을 따라 진주를 원형으로 두르고 중앙에는 큰 구슬이 배치된 모습이었다. 발굴 보고서에도 유리제 사리기에 있었던 진주가 복원된 형태로 소개되었다(도 10).¹⁹ 그러나 오랜 기간 밀폐된 공간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외부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서, 출토된 이후 장식이 탈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떨어져 나간 진주의 행방이나 장식된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진주를 사리구의 제작에 활용한 것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송림사의 사리함에서는 銀製鍍金裝飾이 공양품으로 납입되었는데, 가운데가 접히면서 좌우대칭이고 뿌리부분은 꽃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미륵사지를 비롯한 백제 유적에서 발견되는 은제관식의 외형과 비교되는 유물로, 송림사 사리장엄구가 백제와 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²⁰ 진주 장식도 같은 맥락에서 백제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금속과 유리의 조화



도11. 〈琉璃杯〉, 높이 11.2cm, 일본 奈良 正倉院 中倉 (『正倉院展』(奈良國立博物館, 2012), 도판 26, p. 46)

칠곡 송림사 전탑에 봉안된 유리제 사리기는 正倉院 中倉에 전하는 琉璃杯와 자주 비교되는 유물이다(도 11). 기본 형태와 걸면의 고리형 장식이 매우 유사하며, 색상과 받침대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다. 正倉院 소장품은 유리기를 완성한 후에 추가로 은제 받침대를 만들어 부착한 것이다. 유리배와 접착되는 부분은 팔메트 잎으로 구성되었고 중심은 기둥과 연결되며, 원형 받침에는 당초문을 선각한 후 바탕에 어자문을 시문하였다. 특히 옷칠이 접착제로 사용되고 당초문의 형태가 용과 결합된 문양으로 확인되어, 받침대는 동아시아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²¹ 이와 관련하여, 유리배의 받침에 있는 문양과 백제 미륵사지 사리외호를 비교하여 백제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²²

正倉院 소장품이 송림사 전탑에서 출토된 유리기와 비슷한 부분은 잘 알려져 있었고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을 국내 학자가 주장한 바도 있다.²³ 또한 무령왕릉 출토 은제함의

¹⁹ 김재원, 「松林寺博塔」, 『진단학보』 29·30 (1996), pp. 13-28 (『韓國과 中國의 考古美術』(문예출판사, 2000), pp. 100-123 재수록).

²⁰ 신숙, 앞의 논문 (2016), p. 49.

²¹ 유리배가 서아시아의 영향을 받은 기물이지만 받침대는 추가된 장식으로 보면서, 중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東野治之, 『正倉院』(岩波書店, 1988), pp.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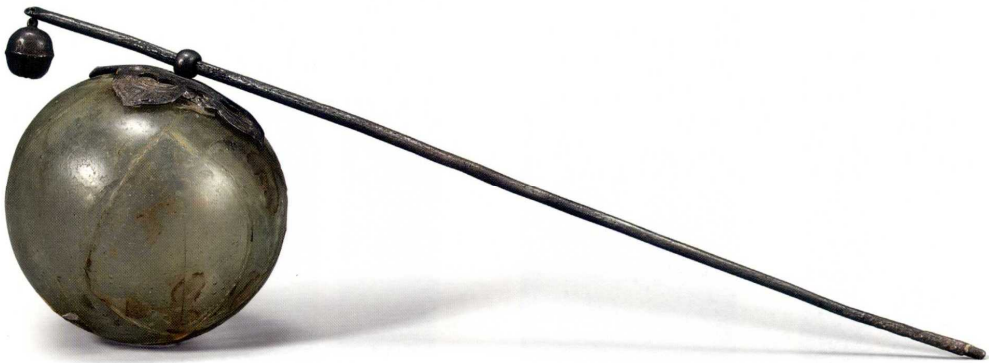
²² 內藤榮, 「金工から見た琉璃杯」, 『正倉院展』(奈良國立博物館, 2012), pp. 123-126.

뚜껑이나 부여 외리 출토 연화문전의 문양과 접점이 있다고 지적되었지만 미륵사지 출토품과 비교하여 백제 제작 설을 명확하게 주장한 점은 새롭다. 실제 유리배 받침의 문양은 미륵사지 유물과 증대한 유사성을 갖는다(도 12). 문양의 외형 뿐 아니라 짧고 섬세한 선각으로 세부를 표현한 것과 역동적인 당초의 흐름이 비슷한 인상을 준다. 바탕의 어지문도 조밀하지 않고 다소 듽성듬성 찍혔지만 원문은 고르고 일정한 모습이 두 유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正倉院소장 琉璃杯와 같이 유리 기물에 금속을 덧붙여 장식한 예는 부여 하황리에서 발견된 銀製柄琉璃釵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도 13). 하황리 출토품은 크기와 모양으로 볼 때, 머리를 장식하는 비녀(釵)로 추정되며, 불기 기법으로 제작된 유리제 기물이다. 공 모양의 유리에 손잡이가 부착되었고 연결한 부분에는 방울이 달렸으며, 접착면인 은제 장식판에는 삼릉심엽형 화문이 장식되었다. 얇은 판을 오려 내어 만들었는데, 하트모양의 중심 부분은 투각하였고 세부는 선각으로 잎맥을 표현하였다. 하황리 출토품은 유리 기물에 금속제 장식을 붙여 완성한 것으



도12. <금동사리외호>, 백제, 높이 13cm,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4, 사진 2-2, p. 42)



도13. <銀製柄琉璃釵>, 백제, 충청남도 부여 하황리 출토, 지름 4.5cm,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2014, 도판 124, p. 113)

23 최재석, 「日本 正倉院의 유리와 그 제작국」, 『일본학지』 15,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1995), pp. 50-51.

로, 불기 기법으로 만든 유리를 수입한 것인지 혹은 국내에서 제작한 완제품인지 궁금함을 갖게 한다. 유리에 금속을 접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장식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아, 유리 제작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만일 유리를 수입한 것이라도, 琉璃杯와 銀製柄琉璃釵는 백제시대 유리제 기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추가로 가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유리와 금속의 결합을 통해 백제의 공예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I. 正倉院의 義慈王 관련 기록과 공예품

1. 문서의 내용과 현존 유물

正倉院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백제 의자왕과 관련된 기록이 전한다. 즉 東大寺『獻物帳』의 〈國家珍寶帳〉에 의자왕이 일본 内太臣에게 선물한 厨子和 納物이 열거되었다. 内太臣은 飛鳥時代 藤原鎌足(614?~669)을 의미하며, 645년 中大兄皇子(후에 天智天皇)와 함께 정변을 일으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蘇我蝦夷과 蘇我入鹿 父子의 일족을 몰아내고 중앙집권적 정치 개혁인 大化改新을 이끌었던 인물이다.²⁴ 그는 두 손녀를 황실에 시집보냈기 때문에, 聖武天皇의 曾祖父이면서 부인 光明皇后의 祖父가 되었다. 따라서 의자왕에게 받은 선물은 황실 소장품으로 계승될 수 있었을 것이다. 기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東大寺獻物帳』〈國家珍寶帳〉第4紙(北倉158)²⁵

赤漆觀木厨子一口

右百濟國王義慈進於内太臣

納物

犀角一具, 重大五斤 二角連底 一角長一尺三寸 一角長六寸

白犀角一枚, 重大六斤八兩 長三尺一寸七分 本徑五寸五分

²⁴ 『日本書紀』卷第24, 天豐財重日足姬天皇 皇極天皇, “四年…六月丁酉朔甲辰 中大兄 密謂倉山田麻呂臣曰 三韓進調之日必將使卿讀唱其表 遂陳欲斬入鹿之謀 麻呂臣奉許焉 戊申 天皇御大極殿 古人大兄侍焉 中臣鎌子連 知蘇我入鹿臣 爲人多疑 晝夜持劔 …使海犬養連勝麻呂 授箱中兩劔於佐伯連子麻呂與葛城稚犬養連網田 曰 努力努力 急須應斬 …是日 雨下潦水溢庭 以席障子覆鞍作屍 古人大兄 見走入私宮 謂於人曰 韓人殺鞍作屍 謂因韓政而誅”

²⁵ 『正倉院展』(奈良國立博物館, 2006), p. 115.

犀角一枚, 重大三斤六兩 長二尺 本徑五寸七分
 斑犀角一枚, 重大一斤十三兩二分 長七寸 本徑五寸
 白石鎮子十六箇, 師子形八 牛形六 兔形二
 銀平脫合子四合, 各納菓子

주자 안에 수납되었던 納物의 일부는 전하지 않지만 은평탈합 4점과 바둑돌 516개가 正倉院 北倉에 보관되어 있다. 관련 물품이 모두 백제에서 건너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의자왕의 선물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²⁶ 물품 내역 중에 상당수가 犀角인데, ‘犀角一具’는 두 개의 뿔이 연달아 있는 모양으로 설명하였다. 하나의 길이가 1尺 3寸, 다른 것은 길이 6寸으로 적었는데, 당시 1척을 29.7cm로 환산하면 대략 38.6cm와 17.8cm가 되고 무게는 3kg에 이른다. 뿔이 두 개인 코뿔소였음을 알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품종의 특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白犀角一枚’, ‘犀角一枚’, ‘斑犀角一枚’ 등으로 표시하여, 1차 가공한 것으로 보이고 7kg이 넘는 분량이다. 서각은 대표적인 약재이면서, 공예품의 재료이기도 하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남성에게 유용한 약으로 선호되었고 허리띠와 신발 장식과 같은 남자의 복식에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선물 품목에 포함되기에 적절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재료였지만 백제는 상당한 수량의 서각을 수입하고 소비했으며, 왕실의 예물로 활용하였다.

은평탈합 4점은 지름 11.5 cm, 높이 4.5 cm 크기로 원통형 합이며, 나무로 기형을 만들고 평탈기법으로 장식하였다(도 14). 모두 기본적인 문양의 배치는 동일하고 뚜껑의 중심에 있는 문양의 소재에만 차이가 있다. 3점은 뚜껑의 테두리에 연주문을 두르고 가운데에 있는 꽃나무 아래로 꽃가지를 물고 있는 새를 표현하였고 1점은 중앙에 코끼리가 나타난다. 延曆 12년(793) 6월 11일에 소장품을 점검한 목록인 <曝涼使解>에는 은평탈합



도14. <銀平脫盒>, 일본 奈良 正倉院 北倉
 『正倉院展』(奈良國立博物館, 1993), 도판 16-1, p. 37)

²⁶ 은평탈합과 바둑돌이 주자 안에 있던 것으로 백제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언급한 글은 『正倉院』(學習研究社, 1978)의 도판해설(圖20, 21)과 関根真隆, 「獻物帳の諸問題」, 『正倉院への道—天平美術への招待』(吉川弘文館, 1991) 등에 소개되고 있으나, 일본학자 중에는 문양의 특징이 7세기 유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東野治之, 『日本古代史料学』(岩波書店, 1996)에서는 문양을 唐의 특징으로 보았고 成瀬正和, 『正倉院の宝飾鏡』日本の美術 522 (至文堂, 2009)에는 은평탈합을 8세기 중반 唐代 유물로 파악하였다.

에 있는 바둑돌이 600매라고 기록되었다. 현재는 흰색, 검은색, 붉은색, 남색 등 네 종류로 구성된 바둑돌 516개만 전하지만 원래 바둑을 둘 때는 각 300개씩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²⁷ 즉 300개가 한 세트로 양쪽이 150개를 나누어 갖는 형식이다. 돌의 재료는 흰색은 石莢이고 검은색은 蛇紋石으로 알려져 있으며,²⁸ 다른 두 종류의 바둑돌은 상아로 만들었다.

〈國家珍寶帳〉에는 백제의 厨子와 納物의 품목을 적은 다음에 악기류를 쓰고 木画紫檀碁局과 金銀龜甲碁局龕을 연이어 기록하였다. 두 유물은 바둑판과 그것을 담는 함으로 구성된 것이다. 한편 齊衡 3年(856)에 유물을 점검하고 작성한 〈雜財物實錄〉(北倉 165)에는 의자왕이 전해준 주자의 納物로 은평탈합과 함께 木画紫檀碁局과 金銀龜甲碁局龕을 나열하였다. 당시에는 주자와 은평탈합, 바둑돌, 바둑판, 바둑함 모두를 백제에서 건너온 물품으로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⁹ 바둑판과 함은 正倉院 北倉에 소장되어 있으며, 각각 무게가 3.91kg과 5.86kg으로 무겁고 표면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다. 바둑판은 화점의 수가 17개 표시되어 있는데, 당시 일본의 전통적인 바둑판의 화점 수는 9개이며, 중국의 경우 5개로 알려져 있다.³⁰ 화점의 수를 고려하면 일제강점기 이전에 사용하던 조선시대 방식인 順丈바둑임을 알 수 있다. 순장바둑은 화점이 미리 포진하기 때문에 보통 180개인 바둑돌보다 적게 필요한데, 正倉院의 바둑돌은 150개씩 사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남아 있어 주목된다.³¹

일본에서 최근 바둑판과 함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 세부적인 사항이 추가로 밝혀졌다.³² 두 유물은 1cm 미만의 판재로 만들었고 내부가 비어 있는 구조임에도 상당히 무겁다. 또한 안쪽에서 송진이 관찰되어 소나무로 제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재 正倉院 소장품 중에는 소나무로 만든 유물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木簡으로 흔히 발견된다. 또한 장식기법 중에 소뿔과 같은 재료를 옷칠하여 부착한 부분이 확인되어, 화각기법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화각기법이 유행하는 시기는 조선시대 후반이기 때문에 시대적 간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와

²⁷ 正倉院에는 관련된 바둑돌이 흰색 145개, 검은색 119개, 붉은색 132개, 남색 120개가 남아 있다.

²⁸ 『正倉院展』(奈良國立博物館, 1993), p. 35.

²⁹ 西川明彦, 「赤漆文欄木御厨子と〈赤漆欄木厨子〉」, 『正倉院紀要』 34 (宮内庁正倉院事務所, 2012), pp. 53-70.

³⁰ 正倉院에는 모두 3점의 바둑판이 전하는데, 木画紫檀碁局을 제외한 두 점은 桑木木畫碁局이다. 그 중 中倉에 소장된 유물의 盤面에는 화점 9개가 표시되었다. 화점의 수를 근거로 일본제 바둑판으로 추정하고 있다. 『正倉院展』(奈良國立博物館, 2009), p. 34.

³¹ 안영이, 『다시 쓰는 한국 바둑사』(한국기원, 2005), p. 14.

³² 西川明彦, 「木画紫檀碁局と金銀龜甲碁局龕」, 『正倉院紀要』 35 (宮内庁正倉院事務所, 2013), pp. 1-18.

연결되는 특징은 분명하다.

의자왕 관련 문서에 언급된 藤原鎌足와 백제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해주는 자료는 직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大阪府 高槻市에 자리한 阿武山古墳은 지난 1934년 우연하게 발견되었지만 은밀하게 다시 매장되어서 상세한 기록이 많지 않은데, 학자들은 藤原鎌足の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분에서는 금실로 장식한 관모가 출토된 것으로 전하며, 현재는 흑백 사진 자료만 남아있다.³³ 이러한 관모는 大化改新 이후 647년에 제정된 관위제도에 근거하여, 大織冠이라는 최고위 등급의 신분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日本書紀』에는 藤原鎌足가 天智天皇에게 大織冠의 관위를 하사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³⁴

阿武山 고분 출토품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유물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도 발견되었다.³⁵ 금제사리호와 사리공의 북벽 사이에서 직물편이 여러 점 확인된 것이다. 金絲 자수편은 라직물 바탕 위에, 꼬아 만든 연금사 한 줄을 테두리로 두른 후, 징금수로 고정하였고 안쪽은 붉은 색실로 자수를 놓았다(도 15). 금실은 얇은 金箔을 꼬아서 만들기 때문에 직물을 통과하기 어려워, 가늘 실을 활용해 징그면서 비단 위에 고정하는 방식을 쓴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초화문의 부분으로 관찰되며, 阿武山 고분 관모의 X 레이 사진에 등장하는 금실도 같은 형태로 보인다. 금실의 제작과 사용 방식을 보여주는 이른 시기의 자수로 의의가 있으며, 고대 일본과 백제의 관계, 특히 藤原 가문과 무왕 및 의자왕의 시대를 연결해 주는 귀중한 사례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도15. <금사자수편>, 백제,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4, 사진 2-102, p. 160)

33 槻市教育委員会, 『藤原鎌足と阿武山古墳』(吉川弘文館, 2015); 高集牟田口章人, <한국 익산 미륵사 출토 금실에 대한 일고찰> 제10회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엄(2017) 발표문 참고.

34 『日本書紀』卷第27 天智天皇, “庚申 天皇 遣東宮大皇弟於藤原内大臣家 授大織冠與大臣位 仍賜姓爲藤原氏.”

35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앞의 책 (2014), p. 160; 안보연, 「백제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직물의 봉안위치와 제직 유형 분류」, 『복식』 67-7 (한국복식학회, 2017), pp. 93-94.

2. 공예 재료와 장식기법

1) 옷칠과 平脫

의자왕 관련 문서에 기록된 네 점의奩은 모두 평탈기법으로 제작되었다. 平脫은 나무, 금속, 가죽 등으로 만든 器物에 金銀片 무늬를 붙여 장식하는 공예기법이다.³⁶ 즉 금은을 두드려 얇은 판을 만들고 문양을 재단하여 器面에 접착시킨 후, 그 위에 다시 칠을 하여 고정하고 곱게 마연하는 과정을 거쳐 金銀의 무늬가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다. 백제는 옷칠한 기물 위에 金銀이나 金箔을 부착하는 장식을 일찍부터 사용하였는데, 무령왕릉의 두침과 족좌에서 확인된다.

무령왕의 유물은 표면에 黑漆하고 그 위에 얇은 금판으로 육각문을 만들어 중앙에 금제육화형 장식을 부착한 모습이며, 왕비의 두침은 표면을 붉은색 안료인 진사로 채색하고 금박으로 육각문을 구획한 후 여러 도상을 그려 넣은 외형이다. 이처럼 6세기 전반에 나타나는 옷칠과 금판, 또는 금박을 이용한 첨금기법은 평탈의 원류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후 7세기 전반이 되면 백제의 칠기 성형법과 장식기법이 더욱 발전하여, 正倉院에 소장된 은평탈합과 같은 기물의 제작이 가능했을 것이다. 아쉽게도 백제 평탈 공예품이 아직 국내에 전하는 예가 없어 비교하기 어렵지만, 선행 기법으로 제작된 유물이 출토되었고 일본의 문헌기록과 유물을 통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正倉院에는 거울, 합, 大刀, 병, 악기류 등을 포함하여 많은 수량의 평탈 공예품이 전하고 있다. 또한 평탈기법은 금은을 부착하여 장식한다는 점에서 金銀鈿과 혼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正倉院 소장품 중에는 ‘金銀鈿莊大刀’와 같이 ‘鈿’으로 불리는 여러 점의 기물에 평탈과 유사한 장식이 나타난다. 또한 東大寺에 전하는 ‘金鈿莊大刀’에도 금판을 부착하는 기법으로 문양이 시문되었다. ‘平脫’이라는 용어는 古代 중국의 문헌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용례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三國史記』 器用에 기재된 ‘平文’이라는 용어가 平脫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³⁷ 기록을 보면 四頭品 이하의 계층은 평탈 기물을 쓰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만큼 폭넓게 사용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평탈은 접착력이 있는 옷칠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바탕 재료에 응용할 수 있어, 여러 종류의 기물을 장식하는데 사용되었다. 국내에는 통일신라로 추정되는 세 점의 평탈장식 거울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자연산 조개에 기법이 응용된 합

³⁶ 신숙, 「통일신라 평탈공예 연구」 『美術史學研究』 242·243 (한국미술사학회, 2004), pp. 29-61 ; 木村法光, 『正倉院宝物と古代の技』 (思文閣出版, 2015), pp. 332-348.

³⁷ 『三國史記』 卷33, 雜志2, 器用, “四頭品至百姓, 禁金銀鑄石朱裏平文物”



도16. <바둑돌>, 일본 奈良 正倉院 北倉 (『正倉院展』(奈良國立博物館, 1993), 도판 12, 13, 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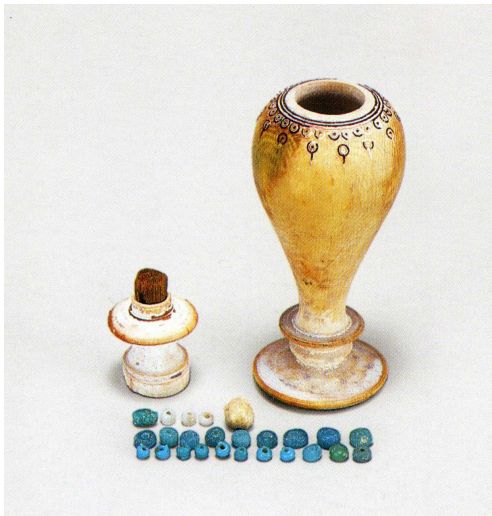
도 삼성미술관 리움에 전한다.³⁸ 또한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평탈 기물은 악기나 佛龕으로 추정되고 있어, 일상기명에서 의례 물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제작되었다.³⁹ 이처럼 통일신라시대에 평탈기법이 크게 유행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백제의 공예 전통을 계승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존 유물의 사례나 백제와의 문화적 교류를 참고하면 일본의 칠공예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상아와 撥鏤

상아는 일반적으로 코끼리의 어금니를 뜻하지만 고대 공예품의 재료로 쓰인 해마, 하마, 고래 등 포유동물의 엄니를 두루 의미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서각과 마찬가지로 상아도 국내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지만 수입한 후 가공기술을 덧붙여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문헌에 등장하는 바둑돌 가운데 두 종류는 표면을 붉은 색과 남색으로 물들인 후, 꽃을 머금고 날아가는 새를 음각하였다(도 16). 꽃가지를 물고 있는 문양은 衡花鳥文으로 불리며, 사산조 페르시아와 중국 漢代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크게 유행한

³⁸ 호암미술관, 『金東鉉翁 蒐集文化財』(1997), p. 110; 국립청주박물관, 『삶과 예술 속 청동이야기』(2016), p. 82 참고.

³⁹ 신숙, 앞의 논문 (한국미술사학회, 2004), pp. 46-49.



도17. <상아제사리호>, 삼국시대, 높이 7.6cm,
삼성미술관 리움
(호암미술관, 『金東鉉翁蒐集文化財』, 1997, 도판 6,
p. 21)

대표적인 문양이다.⁴⁰ 상아의 표면에 색을 입히고 무늬를 새기는 기법을 일본에서는 撥鏤라고 쓰며, 正倉院 소장품 중에서 여러 점 확인된다.

바둑들은 의자와 관련된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더욱 주목되지 못하였다. 일본에서는 撥鏤기법을 전통 문화로 인식하고 기술을 복원하여 재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 상아제 유물은 많지 않지만 삼성미술관에 소장된 사리병을 통해 기법의 원류를 살펴볼 수 있다(도 17). 사리병은 보물 64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함께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삼국시대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사리병은 상아로 만든 몸체를 갖추고 있으며, 어깨 부분에는 선과 원문을 음각한 후 채색하였다. 상아의 표면을 전체적으로 염색한 것은 아니지만 채색과 새김 장식이라는 점에서 발루기법과 연관

성이 있다.

상아는 삼국과 통일신라시대에 즐겨 사용한 대표적인 공예 재료였다. 상아제 빗은 四頭品과 平人 여성도 사용할 수 있었으며,⁴¹ 상아제 머리장신구는 통일신라시대 일본에도 수출된 품목이었다. 관련된 내용은 正倉院에 소장된 문서 「買新羅物解」에 기록되었는데, ‘牙梳’, ‘牙笄子’, ‘牙鏤梳’, ‘牙鏤笄子’ 등으로 언급되었으며, 상아제 笄을 구입한 내역도 확인된다.⁴² 특히 ‘牙鏤’라는 표현은 앞서 등장하는 ‘撥鏤’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문헌 기록도 살펴봐야 하는데, 『唐六典』에는 中尚署의 관리가 매년 2월 2일에 ‘鏤牙尺’을 헌상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⁴³ 문헌의 언급과

⁴⁰ 신숙, 「統一新羅와 唐의 銜鳥文研究」, 『미술사연구』 24 (미술사연구회, 2010), pp. 61-85.

⁴¹ 『三國史記』 卷33, 雜誌2, 色服, “四頭品女 … 梳用素牙角木, 釵禁刻鏤綴珠及純金 … 平人女 … 梳用素牙角已下”

⁴² 「買新羅物解」, “合玖種 丁香(直七斤) 薰衣香(直七斤) … 五六寸鏡(直廿斤) 牙梳(直三斤) 牙笄子(直二斤) 以前物等 價綿壹伯斤 天平勝寶四年六月十六日”, “合貳拾參種 … 牙鏤梳壹拾箇 牙鏤算子貳拾〇 … 以前 可買新羅物并儲買等如前謹解 天平勝寶四年六月廿三日”, “〇 … 〇申請應物事 … 牙笄沈〇丁香 … 天平勝寶四年六月廿四日 事業從八位上日 置酒持”(東野治之, 「鳥毛立女屏風下貼文書の研究-買新羅物解の基礎的考察」 『史林』 57-6, 1974 및 신숙, 「한국 고대 보석장식 공예품과 국제교류」,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별첨 1> 「買新羅物解」 참고)

⁴³ 『唐六典』 卷22, 少府軍器監, “中尚署 … 每年二月二日 進鏤牙尺及木畫紫檀尺”

유사한 상아제尺은 正倉院 소장품으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문헌에 기록된 唐의 ‘鑲牙’나 통일신라의 ‘牙鑲’가 ‘撥鑲’의 선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잘라 버리다’는 뜻을 지니는 ‘撥ねる’가 덧붙여져, 상아 표면을 칼로 새길 때 재료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는지 고민하게 된다.⁴⁴ 새로운 장식기법이 유행하면서 일본으로 전파된 이후, 명칭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문헌 기록을 고려하면, 상아를 ‘鑲’라는 기법으로 장식한 것은 삼국시대에 시작되어 통일신라시대에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과정에 백제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은 正倉院에 전하는 문서와 소장품으로 확인되고 있다. 백제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외국에서 상아를 수입하여 사용하면서,⁴⁵ 표면에 장식을 덧붙여 화려한 공예품으로 완성하였고 우수한 기술력은 전통이 되어 후대와 주변국가에 영향을 주었다.

IV. 맺음말

백제와 고대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우호적 소통과 대규모 백제인의 이주 및 渡來人の 활약과 같은 人的 교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正倉院 소장품과 비교할 수 있는 국내 유물이 적다는 이유로 백제와의 관계가 부정되거나 명확한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유적의 발굴과 새로운 조사에 힘입어 백제시대 자료가 추가되고 기존의 유물이 다시 조명되는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연구는 최근의 발굴과 앞서 고찰된 성과를 바탕으로 正倉院 소장품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공예품, 특히 ‘백제’의 문화와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하였다.

문헌기록을 검토하고 연관된 공예품의 장식 재료와 기법, 문양을 비교하여, 正倉院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백제의 유산과 韓日의 문화교류를 살펴보았다. 미루사지 석탑

⁴⁴ 신숙, 「신라 興德王 敎書에 보이는 공예 장식과 국제교역」, 『한국고대사탐구』 2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7), pp. 331-332.

⁴⁵ 상아는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聖王은 일본에 扶南(인도차이나반도 남동부)의 재물을 전해주었고(『日本書紀』 卷第19, 欽明天皇, “四年… 秋九月 百濟聖明王 遣前部奈率眞車貴文 護德己州己婁與物部施德麻奇車等 來獻扶南財物與奴二口”), 중국의 문헌에는 扶南에서 상아가 산출된다고 기록하였다(『梁書』 卷54 列傳第48 諸夷, “扶南國…出金銀銅錫 沉香 象牙 孔翠 五色鸚鵡”). 따라서 백제가 부남의 산물인 상아를 수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 발견된 진주와 光明皇后의 유품으로 추정되는 正倉院의 진주를 비교하여, 두 나라에서 사용된 왕후의 冠飾을 떠올려 보았고 보석 가공기술의 발전과 영향관계를 알아 보았다. 또한 正倉院의 의자왕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여, 현존 유물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의자왕 재위기간 일본의 藤原 가문과의 특별한 교류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옷칠과 平脫, 상아와 撥鏤를 통해 재료와 연결되는 기법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공예 기술의 발전과 전파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논의된 일부의 내용은 아직 추정이나 작은 단서에 불과하지만 사라진 퍼즐의 조각이 되어, 향후 백제의 공예와 正倉院 소장품의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삼국시대 고구려 고분벽화나 신라의 적석목곽분 출토품의 현황과 연구에 비해, 백제 미술사는 여전히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크게 남아있다. 신뢰할 수 있는 다량의 문서와 훌륭한 유물을 오랜 시간 보전한 正倉院은 우리에게도 귀중한 寶庫이다. 문화는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한다는 지극히 타당한 명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삼국과 남북국시대를 연결하는 백제의 문화사적 위상을 再考한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 주제어(Key Words)

백제(百濟), 미륵사(彌勒寺), 정창원(正倉院), 진주(眞珠), 발루(撥鏤)
Baekje, Mireuksa, Shōsōin, Pearl, Bachiru

참고문헌

〈史料〉

金富軾 編, 『三國史記』, 一然, 『三國遺事』
『舊唐書』, 『唐六典』, 『新唐書』, 『日本書紀』, 『續日本紀』, 『高麗史』

〈도록, 보고서, 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 2010.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특별전』, 2009.
_____,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3.
_____,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4.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 익산시,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특별전』, 2009.
북천박물관, 『옥의 세계』, 2013.
사카에하라 토와오, 이병호 옮김, 『정창원문서 입문』, 태학사, 2012.
최재석,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일지사, 1996.

〈논문〉

강종원, 「백제 沙氏勢力的 중앙귀족화와 재지기반」, 『백제연구』 4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7.
김재원, 「松林寺塔塔」, 『진단학보』 29·30, 진단학회, 1996.
김창석, 「백제 왕실수공업의 성립과 생산체제」, 『백제연구』 4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7.
박남수, 「백제 대외교역상의 金鎰과 益山」, 『사학연구』 98, 한국사학회, 2010.
신 숙, 「통일신라 평탈공예 연구」, 『美術史學研究』 242·243, 한국미술사학회, 2004.
_____, 「한국 미술에 보이는 보석재료와 장식」, 『금은보화』, 삼성미술관 리움, 2013.
_____, 「백제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양품의 보석과 교역」, 『미술사연구』 31, 미술사연구회, 2016.
_____, 「신라 興德王 教書에 보이는 공예 장식과 국제교역」, 『한국고대사탐구』 2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7.
안보연, 「백제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직물의 봉안위치와 제작 유형 분류」, 『복식』 67-7, 한국복식학회, 2017.
이귀영·박대남,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의 의의」,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이송란, 「미륵사지 금제 사리호의 제작기법과 문양 분석」,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9.
_____, 「백제 미륵사지 서탑 유리제사리병과 고대 동아시아 유리 제작」, 『미술자료』 80, 국립중앙박물관, 2011.
이한상, 「왕흥사지 목탑과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의 비교」, 『역사와 담론』 54, 호서사학회, 2009.
_____, 「미륵사지 석탑 출토 은계관식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16, 신라사학회, 2009.
정진원, 「익산 미륵사지 서탑 <金製舍利奉安記> 해독과 쟁점들」, 『동악어문학』 58, 한국어문학연

- 구학회, 2012.
- 주경미, 「백제의 사리신앙과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9.
- _____,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의 구성과 의의」, 『백제연구』 5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4.
- 주보돈, 「미륵사지출토 솔리奉安記와 백제의王妃」, 『백제학보』 7, 백제학회, 2012.
- 한송이, 「왕후사지와 미륵사지 사리공양품의 재검토」, 『백제 사리장엄과 동아시아 불교문화』 국제학술심포지엄, 2015.

〈日文〉

〈도록, 저서〉

- 関根真隆, 『正倉院への道-天平美術への招待』, 吉川弘文館, 1991.
- 槻市教育委員会, 『藤原鎌足と阿武山古墳』, 吉川弘文館, 2015.
- 奈良國立博物館, 『佛舍利と寶珠』, 2001.
- 東京國立博物館, 『唐の女帝・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 宮廷の榮華』, NHK・NHK プロモーション, 1998.
- 木村法光, 『正倉院宝物と古代の技』, 思文閣出版, 2015.
- 北啓太 監修, 『正倉院の世界』, 平凡社, 2006.
- 杉本一樹, 『正倉院宝物』, 新潮社, 2016.
- 成瀬正和, 『正倉院の宝飾鏡』日本の美術 522, 至文堂, 2009.
- 松島順正 外, 『正倉院の宝物』, 平凡社, 1989.
- 『正倉院』, 奈良國立博物館, 毎年特別展示圖録.

〈논문〉

- 內藤榮, 「金工から見た琉璃坏」, 『正倉院展』, 2012.
- 西川明彦, 「赤漆文觀木御厨子と〈赤漆觀木厨子〉」, 『正倉院紀要』 34, 宮内庁正倉院事務所, 2012.
- _____, 「木画紫檀基局と金銀亀甲基局龕」, 『正倉院紀要』 35, 宮内庁正倉院事務所, 2013.
- 松月清郎, 「正倉院の真珠穿孔技法」, 『正倉院紀要』 14, 宮内庁正倉院事務所, 1992.
- 田村朋美, 「飛鳥寺塔心礎出土の真珠製小玉」, 『奈良文化財研究所紀要』, 奈良文化財研究所, 2017.

Ⅰ 국문초록 Ⅰ

正倉院 소장품은 일본의 光明皇后가 남편 聖武天皇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756년(天平勝寶 8) 6월 21일 49齋日에 그가 평소 간직하고 애용했던 634점의 물품을 東大寺에 헌납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예불 의식에 사용한 것이나 외부에서 추가로 헌상된 품목이 포함되면서, 약 9천 여 점에 이르는 수집품을 갖추게 된다. 유물은 東大寺『獻物帳』에 기록되어 入品 당시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고, 엄격한 관리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시대를 대표하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自國産 유물과 함께 한국,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등 실크로드를 통한 국제적 교류의 산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백제가 고대 일본과 정치적, 문화적 교류를 나누며, 특별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을 참고하면 관련된 유물이 正倉院에 소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正倉院에는 백제 의자왕(재위 641-660)과 연관된 문서 기록과 유물이 전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心柱石에 봉안된 사리장엄 일괄 유물과 금제사리봉영기는 백제의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사찰과 석탑의 조성 배경을 알려주는 명문을 통해 沙毛積德의 딸인 무왕(재위 600-641)의 왕비가 재물을 시주하여 639년에 가람을 세운 내용이 확인되었고 동반된 출토 유물도 모두 23건 9,900여점에 이르는 방대한 수량이다. 무엇보다 7세기 백제 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된 출토품이라는 점에서 일본 正倉院 소장품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문헌기록을 검토하고 연관된 공예품의 장식 재료와 기법, 문양을 비교하여, 正倉院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백제의 유산과 韓日의 문화교류를 살펴보았다.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진주와 光明皇后의 유품으로 추정되는 正倉院의 진주를 비교하여, 두 나라에서 사용된 왕후의 冠飾을 떠올려 보았고 보석 가공기술의 발전과 영향관계를 알아 보았다. 또한 正倉院의 의자왕 관련 기록과 현존 유물을 재검토하여, 일본의 藤原 가문과의 특별한 교류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옷칠과 平脫, 상아와 撥鏤를 통해 재료와 연결되는 기법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공예 기술의 발전과 전파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삼국과 남북국시대를 연결하는 백제의 문화사적 위상을 再考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The Seventh-century Baekje Kingdom and the Shōsōin Repository Collections

Shin, Suk *

The Shōsōin Repository (正倉院) began with offerings from the Empress Kōmyō (光明皇后) to Todaiji Temple (東大寺) granted on the twenty-first day of the sixth month of 756 (Tenpyō-shōhō 8) out of a wish for her consort Emperor Shōmu's eternal repose. Her donation consisted of 634 items that the Emperor had treasured in life. Today, the Shōsōin Repository's collection comprises more than 9000 objects, including offerings from other sources and items that had been used in Buddhist services and rituals. Details on the collection are recorded in the Tōdaiji kenmotsuchō (東大寺獻物帳, Catalogue of Offerings to Todaiji Temple), which allows scholars to create suppositions about conditions at the time of the acquisitions. Further, the collection is recognized as housing representative materials from an extensive period that have been maintained and preserved under strict conditions. The Shōsōin Repository is also significant for containing both native Japanese products as well as items that arrived via the Silk Road through Korea, China, Central Asia, and Western Asia.

Given that Baekje maintained a relationship with Japan through cultural and political exchanges,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Shōsōin Repository holds objects related to these exchanges. In fact, documents and objects associated with King Uija (義慈王, r. 641-660) of Baekje are indeed housed in Shōsōin. The sarira reliquaries and the gold plate with an inscription on sarira enshrinement found inside the stone pagoda at the site of Mireuksa Temple in Iksan, North Jeolla-do Province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for understanding the art of Baekje. The inscription on the gold plate describes the background of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and stone pagoda and relates that the queen consort of King Mu (武王, r. 600-641), who was the daughter of the high-ranking official Satak Jeokdeok (沙七積德), made offerings and commissioned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in 639. An extensive number of

* Visiting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objects was found together with the gold inscription plate. The discovery is especially meaningful for the examination of the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the Shōsōin Repository since the buried goods had been commissioned by the Baekje court in the seventh century.

This paper examines the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particularly regarding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Baekje Kingdom, through an investigation of the historical literature and a comparison of the decorative techniques, designs, and materials of pertinent artifacts. By comparing the pearls used in headdresses from the stone pagoda of Mireuksa Temple Site and those from the Shōsōin Repository, I have explored the development of pearl-processing technology and the pertinent relations. Also, the re-examination of documents associated with King Uija and extant objects related to the king in the collection of Shōsōin Repository clarify the relations between Baekje and the Fujiwara (藤原) family. Furthermore, I have looked into the technical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craft technology while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echniques used on particular materials, such as lacquering and pyeongtal (平脫) or ivory and balu (撥鏤). The aforementioned exploration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reevaluate the cultural and historical status of Baekje as it bridged the Three Kingdoms and North-South States periods.

논문투고일: 2018. 06. 30 / 논문심사완료일: 2018. 07. 13 / 게재확정일: 2018. 07. 13